

테마칼럼

이승로의 초대

이재광의 내성

빛고을에 살며

경제포럼 세상보기

‘고향처럼 편하다’고 느끼게 하는 것



안톤 솔츠

의사소통이란 것은 개인의 감정과 큰 연관이 있으며 어떤 이가 타지에 살며 그곳을 고향이라고 느끼게 되었을 때 더욱 그러하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이해하고, 나를 이해시키며, 일상을 영위해 나가는 것이 내게는 고향같이 마음 편한 느낌을 준다.

한 패스트푸드 음식점에서 난 어떤 여성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세 번이나 되풀이해야 했다. 나는 도통 그녀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끝내 그녀는 나를 이상한 눈길로 쳐다보았고 이에 난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우둔한 것 같은 느낌도 들었다. 흥미로운 것은 내가 독일에 있었다는 것이다. 다른 곳도 아닌 바로 내 고국, 독일이라는 것이다. 한국에서 10년여 이상을 지내고 나니 독일에 오는 것이 조금은 낯설게 느껴진다. 물론 친근함이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고 고향인 함부르크에 오는 것도 언제나 좋다. 하지만 오늘 난 세계 육상선수권대회가 열리는 베를린에서 이곳이 광주보다 덜 친근함을 느끼고 있다. 물론 어떤 이는 내가 광주에서 수년을 살았고 베를린에서 보낸 시간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느끼는 것은 이보다 크다. 이는 ‘고향’이 주는 일반적 느낌이 당신의 마음이 머무는 곳, 그리고 당신이 의사소통을 해가는 곳이라는 것과 크게 관련 있기 때문이다.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즉 매사의 시작이며 끝맺음이다. 나는 이를 여느 때보다 더욱더 강하게 느끼고 있다. 가끔은 베를린의 길거리에 서 독일어 한마디도 들려오지 않는 것 같은 느낌도 든다. 라디오 채널을 이리저리 옮길 때 주파수를 타고 들려오는 큰 소음과도 같이 다양한 언어가 뒤섞여 들려온다. 독일, 특히 베를린은 다양한 인종과 문화의 도가니가 되어버렸다. 도시의 군데군데에서는 타국어나 이태리어를 말하는 것이 독일어를 말하는 것보다 오히려 나를 정돈이 니 말이다. 그래서 난 이곳, 독일에서 사람들의

말을 알아듣기 힘들어 다른 이들에게 영어로 말을 건네는 내 자신을 발견하고 있다. 결국 난 사실 한국에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내 말을 이해하게 하는 것이 더 쉬운음을 느끼고 있다. 내 한국어 실력이 완벽한 것과는 거리가 있는데도 말이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바가 고향을 그리워하게 만든다. 그리고 지금 내게는 광주가 바로 고향이다. 사실 지금 글을 쓰는 나 자신이 들어도 조금 이상한 소리긴 하다. 왜냐하면 내가 광주에 처음 왔을 때만 해도 이곳의 삶이 내 일상의 큰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년간 광주는 내게 너무 친근한 곳이 되어버렸고 지금은 광주를 그리워하는 듯한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게 되었다. 의사소통이란 것은 개인의 감정과 매우 큰 연관이 있으며 이는 특히 어떤 이가 자신의 고향이 아닌 곳에서 살며 그 타지를 고향이라고 느끼게 되었을 때 더욱 그러하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이해시키며, 일상을 영위해 나가고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이 내게는 고향같이 마음 편한 느낌을 준다. 물론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언어보다 의미하는 바가 더욱 크다. 반면에 의사소통의 부재는 화를 돋우고 좌절감을 느끼게끔 한다. 요즘 유럽의 미디어에는 인종 혹은 사회적 배경에 의해 발생된 폭동과 범죄에 관한 소식으로 넘쳐난다. 사람들이 더 이상 말로 대화할 수 없게 되면 등장하는 것이 바로 주먹, 몽둥이 그리고 최루 가스이다. 우리가 오늘날 유럽에서 볼 수 있는 광경이 외국인 인구가 급증장하는 한국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만약 독일, 프랑스 혹은 타국에서 보는 것처럼 한국인들이 소수문화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타국인은 그들의 정체성을 강하게 형성해 나갈 수도 있다.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올바른 한국말을 구사하지 못하고 이때 한국인들이 이러한 사회의 새 구성원의 문화를 받아들여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수년간 쌓이는 소수 부재의 문제는 반드시 사회 문제를 야기할 것이며 사회 질서에 금이 가게 할 것이다. 그리고 정말 슬픈 것은 결국 아무도 고향처럼 편하다는 감정을 느끼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개인적으로 지금 나에게겐 한국, 특히 광주가 정말 고향인 것처럼 느껴지며 독일에서 풀이갈 날만 손꼽아 기다려지는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이는 고향이 당신이 어디에서 태어났는가 보다 어느 어디에 당신의 마음이 머무는가에 달렸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좋은 일이기도 하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촌에선 많은 사람과 그들의 마음이 머무는 곳이 매일 새로운 곳으로 바뀌어 간다. 하지만 결국 양측 간의 적합한 의사소통이라는 문제는 사회가 조화로운 다문화 사회로 자리 잡느냐 혹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사회문제를 안고 가느냐라는 차이를 가리게 될 것이다. <조선대 독어교육과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뛰는 생활물가 주저앉는 서민가계

의식주를 비롯해 교통, 교육 등 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물가가 전방위적으로 인상되고 있다. 극도의 경기침체 속에 생활물가마저 다시 오른다면 서민들의 생활고는 심화될 수밖에 없다. 자칫 경기침체 와중에 물가만 치솟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해 서민 가계가 주저앉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물가가 전방위적으로 오를세를 타고 있다. 잦은 폭우 피해로 한 달 새 고추가 65%, 상추가 82% 오르는 등 채소 가격은 ‘급상’이 됐다. 국내 최대 설당 공급업체인 CJ제일제당은 제품 가격을 평균 8.9% 인상하기도 했다. 설탕값이 오르면서 빵과 과자 등 관련 식품의 가격도 덩달아 오를 게 뻔하다. 옷값도 러닝셔츠 15.2%, 팬티 14.7%, 학생복 8.9% 등 10% 안팎의 인상을 보였다. 떡을 것, 입을 것 모두 비싸진 것이다. 의식주를 제외한 다른 품목에서도 가격 상승세가 가파르다. 올해 중학생 찬

고서가 8.5% 올랐고, 기숙사와 급식 비용이 각각 4% 이상 인상됐다. 자동차용 휘발유 소매 가격이 2달 2천원대에 육박한 주유소가 나타나는데 등 유류가 시대를 다시 예고하고 있다. 이런 생활물가의 상승은 지난해 12월에 비해 배 이상 급등한 유가를 비롯한 국제 원자재가가 오르고 있는 데 기인한다. 그렇다 해도 물가가 내릴 때는 조용하던 국내 물가가 오를 때는 재빨리 동반상승하는 것은 큰 문제다. 정부 물가 대책이 곁돌고 있는 반증이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취업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생활물가마저 치솟는다면 서민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는다. 생활물가를 더 이상 방치한다면 서민 가계가 파탄 나고 사회안정이 흔들릴 수 있다. 정부는 이런 비상한 인신으로 물가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물가안정을 위한 확고한 의지를 천명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UN 지원’ 여수엑스포 성공개최 기대된다

2012여수세계박람회 성공 개최에 관한 불이 켜졌다. 유엔(UN)이 여수세계박람회 전시장에 전시관을 설치하고, 국제 사회의 적극적인 지지를 이끌어내는 등 폭넓은 지원에 나섰기 때문이다. 지난 12일 여수를 방문한 반기문 UN사무총장은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회장에 유엔 전시관을 설치하고, 성공 개최를 위해 적극적인 지지 및 후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2012여수세계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참가국이 많아야 한다. 100개국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는 여수세계박람회에 현재까지 참가의사를 밝힌 국가는 20여개국에 그치고 있다. 다행히 반기문 UN사무총장이 여수엑스포 성공개최를 위해 적극 후원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박람회 참가국 유치작업 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람회 위상도 그만큼 격상되게 됐다. 여수세계박람회가 든든한 후원군을 얻은 셈이다.

이 같은 후원의 배경에는 현재 UN이 총력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기후변화 박람회 전시장에 전시관을 설치하고, 국제 사회의 적극적인 지지를 이끌어내는 등 폭넓은 지원에 나섰기 때문이다. 지난 12일 여수를 방문한 반기문 UN사무총장은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회장에 유엔 전시관을 설치하고, 성공 개최를 위해 적극적인 지지 및 후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2012여수세계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참가국이 많아야 한다. 100개국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는 여수세계박람회에 현재까지 참가의사를 밝힌 국가는 20여개국에 그치고 있다. 다행히 반기문 UN사무총장이 여수엑스포 성공개최를 위해 적극 후원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박람회 참가국 유치작업 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람회 위상도 그만큼 격상되게 됐다. 여수세계박람회가 든든한 후원군을 얻은 셈이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중고칼럼



박철수

내가 아는 어떤 분이 오래전에 뉴질랜드로 이민을 했습니다. 이민을 갈 때 아이가 돌이었는데 큰아이는 초등학교 2학년 정도이고 작은 아이는 학교에 가기 전이라 약 7살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돈을 싸들고 이민을 한 사람들이 아니었기에 당연히 낯선 이국땅에서 처음에는 가난하게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모델에서 며칠을 지내

르는 자기 아들이 그렇게 서양의 아이들과 함께 공을 주고 받으면서 놀고 있더라. 그 부부는 병어리 3년 귀머거리 3년을 해도 아직도 전화소리만 들으면 심장부터 덜덜 떨리는 데 꼬마 아들 녀석은 몇 분도 되지 않아 그들과 함께 노는데 아무런 장벽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말은 마음을 전달하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정직하고 솔직해야 비로소 말에 힘이 있고 생명력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말

고 나서 몹시 가난한 동네에 전세로 집을 얻어 이사를 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집이지만 그래도 한참 집 정리를 하고 있는데 작은 아이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부부는 하늘이 노랗고 세상이 깜깜하더라. 말이 안 통하니 파출소로 전화를 할 수도 없고 무작정 집 밖을 나가서 사람을 붙잡고 물어 볼 수도 없고, 그때의 그 심정을 그분들은 해일이 물아치는 조그마한 돌멩이에 붙어있는 기분으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마냥 있을 수가 없어서 부부가 일단 밖으로 나가서 찾아보기로 하였습니다. 한참을 찾고 있는데 조그마한 공원에서 아이들이 공놀이를 하고 있더라. 동네 아이들이 놀고 있는데 아들 같은 꼬마 아이가 다른 아이들과 함께 놀고 있더라. 반갑고 의아한 마음으로 다시 쳐다보니 영어 한마디 할 줄 모

마음이 없는 말은 빈말이고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어떤 말보다도 사람의 말은 신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한자의 信자로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말은 믿을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마음만 간절하면 무엇이든 도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없는 말은 서로에게 상처만 남길 뿐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작년 촛불시위가 한창일 때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 이글거리는 수많은 촛불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실이라면 국민을 이렇게 깔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웅산참사와 미디어법 날치기처럼 의논과 타협의 아용하는 4대 강 사업 등을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마음이 어두운데 어떻게 진솔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없는 말만 하니 소통 아닌 먹통이라고 합니다. <신수동성당 주임신부>

기고



김상운

국악인의 등용문인 제17회 ‘임방울 국악제’ 전국대회가 금년에도 광주에서 갖게 된다.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 중에서도 세계 문화유산에 등록된 판소리는 기악의 아버지요 무용의 어머니로서 전통예술의 꽃이다. 그 판소리의 꽃을 이 땅위에 피우신 분이 국악 임방울 선생이다. 선생은 나라가 일본에 합병을 앞두고 풍건투쟁의 갈등을 겪고 있던 때에 태어났고 가격으로 활동하던 시기는 가장

을 대변하면서 판소리의 명맥을 지켜온 소리꾼이었기에 국창이라는 칭호, 국민이 내린 칭호에 값맞고 국창이 되었던 것이다. 예로부터 우리 광주는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고 고장으로 지금도 그 명성을 이어오고 있으며 판소리를 비롯한 수많은 명창 국악인들을 탄생시켜 국악을 선도함은 물론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문화수도로서 거듭 발전해가고 있다. 우리 지역은 판소리가 발아하고 꽃피

임방울 국악제를 앞두고

아름다운 시절이었다. 민중들의 사랑과 뜨거운 지지를 받고 판소리의 외길을 걸으며 한스런 가락으로 민중들의 애환을 노래하면서 판소리의 명맥을 지켜온 가객이었기에 오늘날 국민들로부터 ‘국창’이라는 최고의 찬사를 받고 있다. 선천적으로 타고난 성음인 청구성에 수리성을 더하여 소리하였다. 선생은 성량 또한 풍부하여 마음먹은 대로 목을 구사해 청중의 열광과 추임새를 불러냈다. 빼어난 성음과 목구멍으로 서민취향을 반영하여 처절한 서러움으로 퍼버리고 통곡하면서 판을 장악하여 민족의 한을 대변해온 것이 아마도 임방울을 국창이라는 칭호에 걸맞은 예술가로 인정하게 한 것이라 생각된다. 선생은 민족의 한스런 정서를 온몸으로 울어 토해냈고 민중과 인정을 나누며 살아가는 소리꾼이었다. 서민의 사랑과 지지에 의존해서 판소리의 외길을 걸으면서 한스런 가락으로 서민의 애환

을 발휘로서 역대 최고의 소리꾼을 배출해 왔으며 전국에서 무형문화재 기능자가 가장 많은 국악의 본고장이다. 또한, 조선 창극사에 나오는 93명의 명창들 중 55명이 전라도 출신인 것만 보아도 서편제의 고장에서 만들어진 우리 일등정신을 상징하는 자부심이다. 임방울국악제는 광주가 대한민국의 문화수도이자 국제적인 문화예술의 도시로 나가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이제 2012년이면 아시아 문화전당이 개관하게 된다. 이 시기에 발맞추어 국창 임방울선생의 기념관을 건립하고 생가복원과 함께 국악전당을 마련 전통예술이 생동감 있게 움직이는 요람으로 조성됐으면 하는 욕심을 부려본다. 이번 9월5일부터 4일간 열리는 임방울국악제를 통해 명성에 걸맞게 국내 최고의 국악경연 대회를 발전하기를 광주시민과 함께 기원해본다. <(사)임방울국악진흥회 사무국장>

無等鼓

최근 SBS 주말극 ‘스타일’이 젊은 감각과 신선한 트렌드로 뜨고 있다. 이 드라마는 패션과 요리를 흥미롭게 다루고 있는데 대중 선호한 직업이 호기심을 자극한다. 남자 주인공 서우진(류시원 분)의 직업인 마크로비오틱 셰프가 그것이다. 마크로비오틱, 영어로는 매크로바이오틱스(macrobiotics)라고 하는데 장 수식 식생활법을 말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제철에 나는 신선한 재료를 통째로 요리해 먹는 친환경 요리법이다. 우리에겐 아직은 생소하지만 이미 일본에서는 10여 년 전부터 장수요법으로 대중에게 각광받고 있다. 우리나라로 치면 최근 웰빙 열풍 정도라고 할까 마크로비오틱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음양의 조화다. 고기나 유제품 등 극양성의 제품은 몸의 균형을 깨뜨린다는 이유로 배제한다. 설탕이나 술 등 극음성 제품도 마찬가지다. 대신 식물성 중 가장 중용의 성격을 띠는 현미를 중심으로 식단을 구성하고, 튀김을 먹을 경

우 레몬즙으로 중화하는 식으로 밸런스를 맞춘다. 이 요법 중 눈에 여겨 볼만한 것은 일물전체(一物全體)의 원칙, 식재료를 에너지 가진 생명체로 보고, 부분적으로 섭취하기보다 전체를 다 먹어 그 에너지를 통째로 전달받겠다는 주이다. 때문에 흔히 제거해 버리는 파 뿌리나 당근 겉질도 깨끗하게 씻어 그대로 사용한다. 또, 유기농법으로 재배된 채소, 곡물, 콩 등을 먹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설탕 대신 조청, 꿀을 쓴다. 화학조미료는 사용하지 않고 주로 다시마나 표고로 국물을 낸다. 소금은 천일염을 이용한다. 식약동원(食藥同源), 음식과 약은 한가지라고 했다. ‘잘 살고’에는 항상 ‘잘 먹고’가 수식어처럼 붙는다. 웰빙푸드산업은 미래형 고부가가치산업의 꽃이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의 중심이라는 하도급 제품을 가진 광주·전남이 마크로비오틱이라는 소프트웨어에 주목해야 할 이이다. /김일환 여론대체부장 kih8@

마크로비오틱



눈병 등 전염성 질환자 공공시설 이용 자제했으면

야근이 잦아 숙직실에서 잠을 자는 경우가 적잖다. 아침에 일어나 근처 찜질방에 가서 씻고 두 시간 정도 눈을 붙이는 게 요즘 하나의 코스가 되어버렸다. 그런데 찜질방에서 가끔 눈에 안대 한 사람을 본다. 이런 사람들과 한 욕탕에 들어가 한 찜질방에서 잠을 자는 사람으로서는 내심 기분이 개운치가 않다. 불철에 눈 질환자가 많고 환자와 함께 눈병이 창궐하면 학교 휴교까지 할 정도로 전염성이 강하다. 그런 판국에 눈에 안대를 했거나 눈 자국이

발결게 총혈된 사람들이 아무 거리낌도 없이, 혹은 찜질방 업소 측의 제재조차 받지 않고 맘대로 드나드는 것은 옳지 못하다. 업소에서야 손님이 끊기는 게 두려워서 그럴 수 있겠지만, 이런 사람들을 출입시키는 것이 결국 다른 손님들을 쫓아내는 일임을 알아야 한다. 나로 인해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 눈병을 앓는 사람들은 찜질방은 물론, 수영장, 사우나 같은데 이용을 자제해야 한다. ▲이남영·광주시 서구 광천동

‘인터넷 상담’만으로 병원간 비교 옳지 않다

병원에서 일을 하다 보면 환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예비지식을 갖고와 난처한 얘기를 늘어놓는 경우가 종종 있다. “어느 병원 원장으로부터 어떠한 대답을 들었다” “어느 의원에서는 시술비용이 얼마인데 이 병원은 어떤가” “특정 증상이 보일 때 왜 타 병원과 다른 시술을 권유하는지” 등 의료인의 판단사항까지 꼬치꼬치 캐묻는다. 거기가 의료원의 실수가 있거나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00병원은 서비스가 나쁘다” “00병원을 조심하라”는 등 공

격적으로 비난을 퍼부어 타격을 입힌다. 반대로 “00병원 00의사는 00분야에 끝내준다”는 PR성 내용이 많이 있다. 하지만, 시술에 불만을 품은 일반인들이 의원의 건물 사인과 주소까지 인터넷에 공개하거나 과장과 왜곡을 인터넷에 퍼뜨리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의료상담이 진료를 대신하지 못한다”는 말처럼 인터넷을 통한 상담만으로 어떤 결론을 가지고 병원을 찾아 거기에 맞추려는 생각은 고쳐져야 할 것이다. ▲유지호·목포시 축복동

Table with 2 columns: 光州日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